

백원국 제2차관, “산사태 피해 우려 구역 관리 철저 지시”

- 호우 피해 현장 찾아 신속 복구 및 비상대응체계 유지 철저 지시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17일 오후 3시경 최근 낙석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국도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공사 진행 상황, 비상대응체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.
 - 금번에 피해가 발생한 국도 21호선 완주군 상관면 구간은 사면유실 (360m³), 낙석 등으로 도로시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여 양방향 도로 진입을 차단한 채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.
 - 피해 현장은 발파 작업, 안전시설 설치를 거쳐 오는 20일에 4개 차로 중 2개 차로는 통행이 재개될 예정이며, 올해 연말까지 전 구간 개통 목표로 점검·진단 및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백 차관은 완주군 국도 21호선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피해 규모와 조치 진행 상황, 향후 복구 진행 계획, 비탈면 IoT 계측 시스템 설치·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,
 - “암석 제거 시 현장관계자 등은 작업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, 유사한 비탈면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”과
 - “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도로 사면이 많이 취약한 상태이고 올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,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2023. 7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